



한파 속 솟아난 마이산 역고드름  
이제는 10~16cm 크기로 37개가 만들어졌다.

진안고원의 아침 기온이 연일 영하 10도 이하를 기록하면서 마이산 탐사에 놓인 정화수에 하늘을 향해 역고드름이 솟아 올랐다. 이번에 생긴 역고드름의 길

# 지역문화예술 육성 공모

전북도 문화관광재단,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접수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 10일 정읍·11일 진안·15일 전주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2019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9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16일부터 31일까지 국가 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c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7일 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지원 분야는 문화예술창작, 문화예술 기반 구축, 문화예술 교류활동, 신진예술가의 4개 분야로 전년도와 동일하나, 문화예술창작지원 분야는 지원방식이 일부 개편됐다. 재단은 전년도에는 10개의 장르로 나눠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면, 올해부터는 문예지발간(200

만원), 전시(250만원), 공연(500만원)의 3개 항목으로 나눠 항목별로 예산을 정액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그간 신청 접수된 사업들의 유형을 보면 문학 장르는 발간, 시각예술의 4개 장르는 전시, 공연예술의 4개 장르는 공연, 다원 장르는 전시 또는 공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액 지원을 통해 무분별한 신청예산 삭감 등 그간의 나뉘주기 식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사업신청의 수월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단은 도내 문화예술 정책, 행정, 현장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두 차례 진행했다. 이 자리를 통해 재단이 제시한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기존의 '심의 회피제도 강화'와 '심의 위원 공개추천제', 그리고 '공개심사제' 등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심화 과정에 해당하는 '문화예술기반 구축' 분야와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인터뷰 및 PPT 등의 2차 심사를 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1월 10일 오후 2시 정읍시에 솔화관(남부권), 11일 오후 2시 진안 문화회관(동부권), 15일 오후 2시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도내 문화예술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2019년 사업 개편안 및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bxt.or.kr)와 문예진흥팀(063-230-743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 전주 한 태권도장 사범, 어린 제자 강제추행

탈의실에서 신체 더듬고 강제로 입 맞춰... 피해자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나

태권도 사범이 어린 제자를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은 5일 태권도 사범 A모씨(22)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

이라고 7일 밝혔다. A모씨는 지난 2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던 전주 시내 한 태권도장 탈의실에서 B모양의 신체를 더듬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 사실은 B모양이 부모에

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강석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따뜻한 자원봉사도시 만들 것'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새해 시무식 결의문 낭독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7일 2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2019년도 시무식을 갖고 자원봉사활동 시작을 알리는 다짐의 자리를 가졌다. 사단은 지난 1999년 설립,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어르신과 성인, 청년, 청소년, 관리자 대표 등 각 세대를 대표하는 10명의 봉사자들이 7대 아젠다의 내용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결의'를 낭독하며 자원봉사 실천을 다짐했다. 앞서, 센터는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2018년 전주시 교육문화정책포럼(위원장 최원규)과 함께 7대 아젠다를 설정했다.

아젠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자원봉사 △저출산 시대의 자원봉사 △온라인(ON-LINE)을 활용한 봉사활동 △국제봉사의 수혜국가에서 제공국가로 △통일을 대비하는 한민족 봉사 △자원봉사 후속 세대를 위한 교육과 투자 △자원봉사 관계시스템 재정비다. 황의욱 이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만을 육박하는 전주시 자원봉사자 분들의 열정 덕분에 2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모든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올 한해 전주시 자원봉사의 증진기 비전을 새로이 수립,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쓰러진 보행자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붙잡혀

김제경찰서는 도로에 쓰러진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A모씨(65)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모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 20분경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 위에 쓰러진 B모씨(53)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모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범행 5시간 만에 자택에 있던 A모씨를 검거했다. A모씨는 "도로에 사람이 쓰러진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A모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익산의 한 주택서 화재

주택에서 화재가 일어나 80대 노인이 숨졌다. 7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5시 16분경 익산시 석왕동 한 주택에서 불이 나 A모씨(81)가 숨졌다고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강석훈 기자

주유소서 물품 훔친 50대 검거

폐업한 주유소에서 물품을 훔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피의자 A모씨(57)가 지난 18년 12월 20일 오전 11시경 완주군 B면 폐업한 주유소에서 주유탱크 뚜껑, 샌드위치 판넬 등 시가 17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경 A모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차량 안 물품 절도 용의자 검거

시동이 켜져 있는 차량에 들어가 물품을 훔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33)는 지난 18년 12월 15일 오전 10시 52분경 군산시 B동 한 원룸 앞 시동이 켜져 있는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노트북, 현금 등 시가 236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5일 오후 4시경 A모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